

4·3소설의 유형과 전개

金 兩 澤 *

1

작품을 평가할 때 그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령, 한 작품을 연속성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과 비연속성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작품이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입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작품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작품에 따라서는 아예 처음부터 한 가지 입장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4·3사건을 소재로해서 쓰여진 4·3소설의 경우는 어떨까. 4·3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1948년 전후의 국내외의 불안한 정세, 그리고 그에 따라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恨 등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게다가 4·3사건의 진상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출신 작가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진상을 밝혀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된다. 물론 역사와 문학은 본질부터 다른 분

*부교수

야이긴 하지만 4·3사건이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극도로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사실성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소설이 아닌 4·3소설인 한에 있어서는, 4·3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까지 금기시되어 온 터이므로 앞으로는 가능한 한 4·3사건에 관한 실제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쪽으로 작가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4·3사건을 소재로 해서 쓰여진 4·3소설을 평가하려 할 때는 일단 연속성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발표된 4·3소설들이 비학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거나 비연속성의 입장에서 평가될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몇몇의 4·3소설들은 작품 자체의 성공이 비학적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빼어난 구성 솜씨를 보여 주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 글은 꽤 많은 분량으로 늘어난 — 거의 없었던 과거에 비해서 — 4·3소설들 중 대표적인 작품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연속성의 입장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지금까지 발표된 4·3소설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玄基榮 ; 〈順伊 삼촌〉 〈도령마루의 까마귀〉 〈海龍 이야기〉 〈아버지〉 〈잃어버린 시절〉 〈아스팔트〉 〈길〉
- 玄吉彦 ; 〈우리들의 조부님〉 〈먼훗날〉 〈지나가는 바람에〉 〈귀향〉 〈씩여지지 않는 비문〉 〈불과재〉 〈바람과 불길〉 〈未明〉 〈정오표〉 〈무흔곳〉 〈집없는 魂〉
- 吳成贊 ; 〈沙浦에서〉 〈나비로의 환생〉 〈보춘화 한 뿌리〉 〈바람의 눈〉 〈한라구절초〉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 高時洪 ; 〈도마칼〉
- 吳景勳 ; 〈당신의 작은 촛불〉
- 金石禧 ; 〈땅울림〉

이 작품들 외에도 재일동포 작가인 제주도 출신 金石範이 일본어로 쓴 것을 李浩哲·金石禧가 공동으로 번역한 〈火山島〉·〈까마귀의 죽음〉 등이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작품들 중 필자가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A형 : 작가 자신의 4·3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들. 〈잃어버린 시절〉 〈귀향〉
- B형 : 4·3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 〈도마칼〉 〈順伊 삼촌〉
- C형 : 4·3사건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소재로 한 작품들. 〈보춘화 한 뿌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A형의 작품을 쓸 수 있거나 쓴 작가로는 현기영, 현길언, 오성찬 등이며 이들은 유년시절의 기억을 더듬어서 실제로 겪었던 체험을 작품화한 바 있다. B형의 작품들은 고시홍, 오경훈 등에 의해 쓰여졌고 C형의 작품들은 오성찬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성찬은 당시의 상황을 체험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기록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으며, 그 결과를 「한라의 통곡소리」라는 이름의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다.

3

먼저 A형에 속하는 현기영의 〈잃어버린 시절〉에 대해 알아 보자. 이

작품의 주인공 종수는 어렵게 태어난 외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도 다른 아이에 비해 더디다. 종수 할머니는 여러번 종수에게 위험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도록 타이르곤 했으나 언젠가는 나무 위에 올라 갔다가 떨어져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종수는 글청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종수네 바깥채에 일본군 소대장 1개 분대가 목계 된다. 종수는 소대장이 시키는 대로 ‘덴노헤이까 반자이’를, 미국 비행기 다섯 대가 격추되었을 때 좌익 일이 있다. 해방이 되자 미군 1개 연대가 읍내에 진주하게 되고 좌익, 우익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개시한다. 군정은 과거의 친일파를 중용하는 등 실수를 거듭하고 징병, 징용으로 사지에서 해매던 젊은이들도 북지나나 남지나에서 귀국선을 타고 속속 입도하게 되는데, 곧이어 읍내에는 호열자가 번지기 시작한다. 종수도 이 병에 걸렸으나 죽지는 않았다. ‘좌익병’이 호열자 못지 않게 창궐하던 어느날 종수네는 동네 청년들에 의해 과거에 일본군을 바깥채에 목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친일파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듬해 3·1 독립운동 기념일날 읍내의 북국민학교에는 2만 군중이 동원된 대집회가 열렸으며 파쇼 타도와 반미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발포로 6명의 희생자를 내고 만다. 종수도 ‘왓샤’ 소리를 내는 청년들과 함께 섞이려다 아버지로부터 크게 혼난다. 1948년 4월 3일 산에 숨어 있던 좌익은 기어코 4·3사건을 저질러 놓고 만다. 5·10총선거 때에도 입산자와 경찰은 여전히 대립되어 각종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이즈음에 종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건너 마을에 판 살림을 차린다. 결국 종수 아버지는 도박죄까지 쓰게 되고 엉뚱하게 도피자로 몰리게 되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후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까닭없이’ 부수히 죽어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수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물어보면, 폭도에게 죽창을 맞아 죽었다고 대답하곤 했다.

이상의 줄거리를 통해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인공의 비극적인 삶이다. 그 이유가 주인공의 의지와 관계 없이 진행된 시대 자체에

있다고 볼 때 삶의 비극성은 더 커진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비껴갈 수만 있었다면 주인공은 것처럼 불행 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인공의 아버지, 할머니도 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의 권위를 지키며 역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항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무시하고 인간을 위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을 앞 세우기 일쑤이다. 종수의 경우, 아버지의不在가 어른이 될 때까지, 어쩌면 죽는 날까지 엄청난 고통의 근원으로 작용했을 것은 뻔하다. 지금도 4·3 사건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남겨 놓은 생체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그것은 생존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이 작품은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흐름(변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개인의 생애와 체험은 얼마든지 역사적 성격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A형의 다른 작품인 현길언의 <귀향>은 아버지로부터 ‘18일오사까발항 공편착’이라는 국제전보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주인공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아버지는 서울에 유학을 가서 경성제국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귀향하게 되면 사각모에 망또를 걸치고 발을 달리던 사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서울로 가서 공부를 더 하라는 할아버지 권유도 듣지 않고 읍내 중학교의 영어 선생으로 눌러 앉게 된다. 아버지의 방에는 밤마다 젊은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하였으며 때로는 그들끼리 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먼 산길을 떠나는 차림으로 훌쩍 집을 떠났는데 바로 그 뒷날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집안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4·3사건이 수습되고 6·25가 휴전이 되어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을 거들고 있던 중 서독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나’는 출국 준비를 위해 연구실 일을 그만두고 귀향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상경하라는 교수의 전보를 받고 가보니

외국 여행 결격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아버지가 아직껏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밀입국하여 그 곳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저쪽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일하는, 소위 거물급이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이 때 아버지와의 절연을 선언했고 그 후 나홀만에 숨을 거두고 만다. 국제선 대합실에 돌아 온 아버지는 유골 상자 속에 담겨 있었다. 이복 동생이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꼭 고향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운명하시기 전에 직접 쓰신 것입니다.” 라고 한 말 속에 그 동안의 경위가 함축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부각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죽음을 야기시킨 아버지의 행동이다. 물론 이 행동은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이며 ‘나’가 서독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할 수 있는 걸림돌로서의 역할에까지 이어진다. 이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소위 ‘連坐制’가 그것인데, 제 5 공화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 범위도 ‘친족’ 정도가 아니라 교우, 학파, 출신 향리에까지 확대되어 왔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기영의 <잃어버린 시절>도 그러하지만 이 작품도 주인공을 둘러싼 시대의 현실을 다룬 것보다 중시함으로써 4·3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진실을 드러내려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때의 객관적 진실은 물론 역사적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로 쓰여진 현실에서 발생하는 예술적(문학적) 진실을 의미한다. 아무리 시대의 현실을 잘 재현한다 하더라도 소설로 쓰여지는 한에서는 역사적 진실 그대로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B형의 작품인 고시홍의 <도마칼>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되어 있다. 어머니는 늘 도마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피해에 대한 방어 본능의 무의식적 표출이거나 아니면 복수심의

발로인 듯하다. ‘나’는 어머니의 이러한 일련의 증세를 고쳐 보려고 애쓰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만다. 신경외과 의사인 손상도에 의하면 “파괴된 뇌세포 하나가 재생되려면 적어도 이십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장기적인 정신요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의 증세는 작은 삼촌이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 방문단에 끼어 제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더 증세가 악화된다.(이 작품의 주인공 ‘나’는 작은 삼촌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작은 삼촌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이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머니’도 법적인 어머니이며 실제로는 작은 삼촌의 부인 즉 작은 어머니이다.) 어머니가 앓고 있는 정신병의 증세는 예컨대 문을 부순다든지 유리를 깬다든지 하는 파괴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언젠가는 철물점에 가서 도마칼을 훔친 일도 있었다. 마침내 작은 삼촌이 도착하여 옛날의 부인인 어머니와 상면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혼미한 상태에 있다. 기도원에서 조차 속수무책인 어머니를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밥먹을 적이나 잠잘 적이나 도마칼을 노리 개처럼 차앉아 사는 어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러 기도원에 갔을 때에는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숙소 건물 기둥에 묶여 있는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마칼의 상징이다. 그런데 도마칼이 상징하는 바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즉, 그것은 평온한 일상의 삶을 파괴한 세력에 대한 복수심을 물체화한 것이며 삶의 본질적인 영역과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정신의 극단적 아이러니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삶은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병의 증세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나’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마칼이 상징하는 바가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작품 속에서 ‘도마칼’이 차지하는 문맥과 그것의 출처를 눈여겨보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마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삶을 전제로 한 상징의 도구인가에 대한 복선을 마련할 수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상징의 도구로 설정된 ‘도마칼’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천적 배경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가 나름대로 엮어야 할 몫일 수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B형의 다른 작품인 현기영의 〈順伊 삼촌〉의 ‘나’는 모처럼 이틀 간의 휴가를 받고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 간다. 가족 묘지 매입 관계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할아버지 제삿날에 맞춰 내려 오라는 큰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 날은 두 집 제사가 있는 날이라 큰당숙택에서 초저녁에 제사를 치른 다음 모두 큰집에 모였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밥을 해주며 같이 살았던 순이 삼촌이 보이질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환청 증세가 심하고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순이 삼촌은 국민학교 근처의 일주도로 변 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음력 설달 열여드레날 하루에 추렴 돼지가 유난히 많고 한밤 중이면 슬픈 곡성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은 순이 삼촌네 밭처럼 움푹진 다섯 개의 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밭을 에워싸고 벼락같이 총질을 했었으니까 순이 삼촌은 그때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 한 점 상하지 않고 살아났으니 참 신기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실마리로 하여 붓물이 터진 것처럼 4·3 사건 당시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작가는 이 작품의 한 부분에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명백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이 명백한 죄악이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도마칼〉에서의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듯 이 작품에서의 순이 삼촌도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환청 증세와 신경쇠약에 시달린다. 이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공통의 방법에 의해 표출되고 있다는 점보다도 두 사람 모두가 정신병에 시달릴 만큼 충격이 컸다는 쪽에 초점을 모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두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것은 이상한 일

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심리구조가 비정상이면 비정상일수록 일상의 생활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순이 삼촌의 언행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차라리 순이 삼촌으로서의 지옥과도 같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恨을 근간으로 하는 4·3 사건에 대한 관점을 소설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C형에 속하는 작품인 오성찬의 〈보춘화 한 뿌리〉는 주인공이며 나레이터인 ‘나’가 4·3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서울에까지 가서 당시의 부대장이었던 장군을 인터뷰한다. 장군은 1948년 그믐께 제주에 갔었는데 부대장인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선무공작 활동을 벌이는 일이었다. 장군이 ‘나’와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대체로 자기 자신의 무용담이나 공적을 내세우는, 다분히 자기과시적인 것들 뿐이다. 예를 들면 당시에 이대통령이 서귀포에 내려오게 되니까 지금의 서귀포 1호 광장이 생기게 되었다든지, L 5를 타고 서귀포로 가던 중 갑자기 엔진 고장이 난 것을 자기가 금방 고쳐서 위기를 넘겼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심지어 장군은 당시에 제주도의 어느 곳을 가든지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지금의 제주 축후소 옆에는 도민들의 정성으로 송덕비가 세워졌다는 말까지 했다. 둘째 날의 인터뷰에서 장군은 가장 처참한 사진의 하나인 ‘북촌사건’의 오백명 보복 사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인터뷰의 내용을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나’와 장군이 4·3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자주 피력되곤 한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증언하는 증언자의 의도에 따라 그 역사는 진실을 담기도 하고 허위를 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장군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속적인 은퇴자의 한 사람일 뿐이며 후에 내려질 준엄한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처럼 보인다. 장군은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친밀성을 보이기는 했으나 역사

적 변혁의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의 심각성과 진지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4·3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는 두 개의 이질적인 이데올로기가 끊임 없이 교체되고 있던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영위된 제주도민들의 생활은 어떠한 수치나 통계로도 결코 나타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생활이었다. 그런데도 장군은 4·3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인식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할 수는 물론 없는 일이지만 책임있는 증언을 해야 할 사람들이 책임있는 증언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를, 그 당시의 분위기와 결합시키면서 이 작품은 잘 보여 주고 있다.

C형에 속하는 다른 작품으로서는 같은 작가의 작품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가 있다. 이 작품은 향토사학자 양충식씨가 문화재과의 사무관 한 사람을 대동하고 남제주군 일대의 옛날 비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명구에 관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다는 느낌을 주기는 어렵다. 주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주명구는 해방 공간의 시기에 이 섬에서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를 주도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전 생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매우 불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조직의 명수여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모았고 그 사람들에게 반미감정을 선동하는가 하면 파업을 주동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가 1948년 4월 3일부터는 자취를 감추었고 사년 후의 겨울날 신문에는, 부산에서 남로당 제주지구 거물이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난다.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부인의 말에 의하면, 옥살이를 한 후에 그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가족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나 속죄의 자세로 노력한 결과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 위장병, 황달, 간경화, 뇌출혈이 겹쳐 사망하고 만다.

이 작품은 공산주의자 주명구를 등장시켜(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한 개인의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층적인 현실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극의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주명구가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닌 공산주의를 신봉한다는 데에 있으며 또한 공산주의를 신

봉하는 주명구의 행동이 개인의 차원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의 차원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를 한꺼번에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하게 마련이며 더구나 내적 상황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4

이데올로기와 소설은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거니와 그 밀접한 관계의 터전 위에서 이데올로기는 소설이라는 틀 속에 용해되거나 때로는 포용되면서 소설의 주제를 고차원의 세계로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3 소설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우익 등의 용어들만 빈번하게 등장했을 뿐 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예술적 만남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가들이 한결같이 4·3사건의 진상만을 가급적 잘 드러내려 하거나 또는 고발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4·3 소설들에는 이데올로기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끼어들긴 하지만 주제의 전개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4·3사건이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의 끊임없는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4·3사건을 소재로 한 4·3 소설에서 이데올로기끼리의 갈등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역시 그 이유도 작가들의 그러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4·3소설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한 작가의 역할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것이다. 아직도 4·3사건에 대해서는 밝혀진 부분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결국 4·3소설의 훌륭함 여부는 4·3사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